

‘물 반 꽃게 반’ 전남 꽃게 생산량 23년만에 최대

올 1~3월 꽃게 생산량 144t... 지난해 보다 2.5배 148% 경증 전국 생산량 40% 차지...매출 38억원, 1년 전보다 128.6% ↑

전국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전남 꽃게가 올해 1분기 23년 만에 최대 생산량 기록을 세웠다. 모처럼 만의 풍어에 식객들이 설레고 있다. 2일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전남 꽃게 생산량은 144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8t)보다 2.5배(148.3% ↑) 수준으로 잡혔다.

올 들어 전남 꽃게는 1월 39t, 2월 17t, 3월 88t으로 봄철 수확량이 급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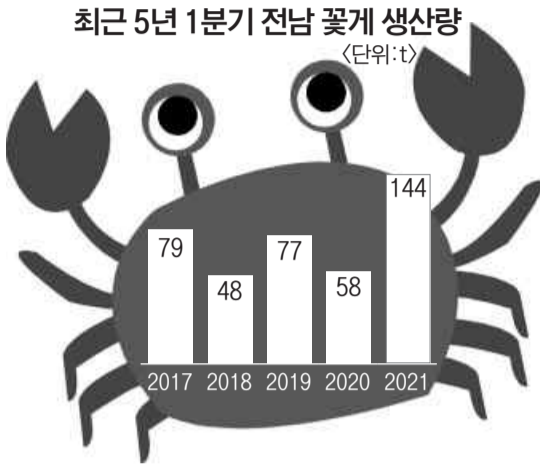
1분기 전남 꽃게 생산량은 전국(359t)의 40.1%를 차지했다. 전국 생산량 역시 전년(198t)과 비교해 81.3%(161t) 증가했다.

1분기 생산량을 비교할 때 올해 전남 꽃게 생산량은 지난 1998년(361t) 이후 23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최근 5년 동안 1분기 전남 꽃게 생산량은 31t(2016년)→79t(2017년)→48t(2018년)→77t(2019년)→58t(2020년) 등 100t을 크게 밑돌아 왔다. 지난 1998년 361t을 수확한 이듬해 생산량은 4분의 1 수준인 95t을 기록하다니 지난해까지 22년 동안 100t을 넘긴 사례가 없었다.

올해 1분기 전남 꽃게 생산금액(매출액)은 38억2600만원으로, 1년 전(16억7400만원)보다 128.6%(22억원)이나 뛰었다. 전국 생산금액도 전년보다 71.5%(41억원) 증가한 98억9000만원을 기록했다.

꽃게는 봄과 가을이 제철인데, 봄에는 산란을 앞두고 진한 노란색 알이 짙은 암게가 인기가 많다. 가을에는 살이 통통하게 오른 수컷이 일품이다. 꽃게는 단백질, 키토산, 필수 아미노산이 다량



함유돼 피로를 푸는 데 제격으로 알려져 있다. 진도 서망항은 지난해보다 한 달 이른 4월부터 만산을 이룬 꽃게잡이 어선이 들락거리고 있다. 진도군수협이 지난 3월 초순부터 한 달 가량 위판한 꽃게는 118t, 위판고는 35억원이다. 이는 같은 기간 기준으로 지난해 40t(15억원), 2019년 26t(10억원), 2018년 33t(9억원) 보다 4~5배 이상 많은 어획고이다. 올해는 바다 평균 기온이 12~13도로 따뜻하고 조도면 해역에 냉수대가 형성돼 플랑크톤 등 먹이가 풍부하고 모래층이 알맞게 형성되면서 꽃게 서식 환경이 자연스럽게 빨리 조성됐다.

특히 연중 적조가 발생하지 않는 청정 해역인 진도는 2004년부터 바닷모래 채취 금지와 함께 매년 1억원 이상 꽃게를 지속적으로 방류해 꽃게 최적의 서식 여건이 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2일 (주)광주신세계 직원이 제철을 맞은 암꽃게를 본관 지하 1층 푸드마켓에서 100g당 5980원에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aT, 온라인 수출상담회 1차 건강기능 식품 개최

올해 테마형 상담회 4회 개최 예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난달 27~28일 '2021년 제1차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열어 건강기능식품 수출을 도왔다고 2일 밝혔다.

aT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해외 판로 개척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상담회에는 일본, 중국, 베트남, 태국 등 4개국 31개사 유력 바이어(구매 담당자)와 국내 40개 수출업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109차례에 걸친 일대일 화상상담을 벌였다.

그 결과 23억2400만원 상당(208만달러) 성과를 거뒀다.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기능·발효·유기농 식품 등 인기가 크게 높아졌다. 해외 구매자들은 주로 인삼·홍삼제품과 기능성 음료에 대한 관심을 표현했다.

aT는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수출상담회에 이어 가정간편식(HMR) 및 신선농산물 온라인 수출상담회, 육내채널 바이어 초청 상담회 등 '테마형 K-푸드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올해 총 4회 개최할 계획이다.

상담회에 참가한 베트남 '선희푸드' 관계자는 "건강과 미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한국 홍삼 및 플라센트류의 맛과 기능성이 현지 소비자를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형환 aT 수출이사는 "농식품 수출업체들에게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해외 마케팅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 전남본부, 함평 고령 농업인에 '효사랑 건강꾸러미' 전달

간편식 7가지·양파 김치 등 구성

코로나 예방물품 꾸러미 전달도

농협 전남지역본부가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농축산물로 '효사랑 건강꾸러미'를 만들어 함평 고령 농업인에 전달했다.

전남본부는 지난 30일 함평에서 농가주부모임 희망드림봉사단과 '효(孝)사랑 건강꾸러미' 나눔 행사를 벌였다고 2일 밝혔다.

꾸러미는 삼계탕 등 간편식 7가지와 봉사단이 직접 담근 양파김치와 장아찌 등으로 구성됐다.

전남본부는 앞으로 건강꾸러미 1500상자와 코로나19 예방물품 꾸러미 5000상자를 전남 곳곳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봉사활동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농협재단, (사)농촌사랑법국민운동본부이 후원했다.

박서홍 전남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적적해진 어르신들 찾아 나눔의 정을 함께 해준 봉사단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가정의



박서홍(왼쪽 두번째) 농협 전남본부장이 지난 30일 함평 고령 농업인에 전달할 '효사랑 건강꾸러미'를 옮기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달 의미를 되새기며 사회 전반에 나눔의 온정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 구례교육원, 곡성 소룡·원평마을 명예이장·주민 위촉

농협 구례교육원이 지난 29일 곡성 소룡마을, 원평마을과 명예이장·주민 위촉식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

배성화 구례교육원장과 교직원들은 이날 곡성군 옥과면 소룡마을과 겸면 원평마을의 명예이장·명예주민으로 위촉됐다. 농협은 도농상생 운동인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 운동의 하나로 명예이장을 위촉하고 마을의 소득창출을 돕고 있다.

명예주민이 된 구례교육원 임직원들은 앞으로

마을의 숙원사업과 소득창출을 돕고, 마을 측은 이들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문화체험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구례교육원은 앞으로도 마을행사 참여, 농촌 일손돕기, 농산물 구입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배성화 원장은 "일손 부족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 임곡농협 '친환경 범씨 종자 무료 소독하세요'

한 달 동안 조합원 대상 진행

광주 임곡농협은 지난 4월21일부터 한 달 동안 조합원을 대상으로 친환경 범씨 종자를 무료 소독해준다고 2일 밝혔다.

범씨 소독은 키다리병, 세균성벼알마름병, 이삭 누룩병, 벼이삭충 등 종자전염성 병해충을 예방하

고 모를 건강하게 기르기 위해 실시한다.

기재만 임곡농협 조합장은 "이번 범씨 종자소독 무상지원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 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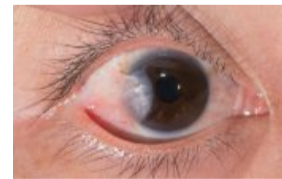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능!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 특

백내장 오인하는 익상편, 원인과 치료

◆ 익상편이란?

익상편은 주로 안구의 내측 결막(흰자위)에서부터 각막(검은동자) 쪽으로 섬유혈관조직이 증식되어 침범, 진행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익상편은 '균날개'라고도 하며, '백태'가 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 증상

흰색의 섬유혈관성 조직이 검은자를 덮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미용상 문제가 되는 것 외에 문제는 없으나, 간혹 심한 경우 난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진행이 많이 되어 동공(애기동자)까지 침범했을 경우에는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곤하고 눈이 자극받으면 충혈이 유난히 심해지기도 합니다.

◆ 치료

익상편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증상에 따라 증상의 호전을 위해 약물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약물치료로 익상편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각막을 많이 침범하지 않은 대개의 경우는 경과 관찰만 하면 되고, 진행이 많이 돼 동공 근처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시력보호를 위해 수술로 제거하게 됩니다.

◆ 수술방법

익상편 수술은 국소마취로, 약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통증과 이물감이 있을 수 있으며 약 한 달간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술 시기의 결정은 동공까지 익상편이 침범했을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느냐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